



‘예수이름신학총서’ 1
『이름-개념으로 본 예수이름의 현재성』
저자: 이명범, 출판일: 2017. 10.



‘예수이름신학총서’ 2
『하나님의 이름』
저자: 이명범, 출판일: 2017. 8.



‘예수이름신학총서’ 3
『이름-개념과 예수이름』
저자: 이명범, 출판일: 2017. 8.



‘예수이름신학총서’ 4
『예수이름신학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이름』
저자: 윤혜진, 출판일: 2021. 2.



‘예수이름신학총서’ 5
『오노마(ὄνομα, 이름)』
저자: 한스 비텐하르트(Hans Bietenhard),
역자: 조남신, 출판일: 2021. 2.

‘보혜사(파라클레토스)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을 변호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모임인 교 회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를 변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보혜사(파라클레토스)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의 현재성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의 이런 공로가 지금 내 것이 되는 것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 History가 되고 마는 것 입니다.

‘보혜사(파라클레토스) 성령’이 하시는 세 번째 일은 하나님의 사정 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 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 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만 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 본문 중에서 -



레마

예수이름신학총서 6

예명신학 1

강응섭 · 유복곤 · 조남신

예수이름신학총서 6

예명신학 1

예명콜로키움 13회~16회(2020.6. ~ 2022.4.)

강응섭 · 유복곤 · 조남신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5~11)

레마

강응섭 (KANG eungseob)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몽펠리에개인 교신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예명대 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다. 저서로는 Les théories freudiennes et lacaniennes sur l'identification. Application au traité du serf arbitre de Martin Luther(1998), 라깡과 기독교의 대화(2018) 등. 역서로 는 정신분석 대사전(2005) 등. 논문으로는 앙살디와 꼬 스의 '하이브리디티 신학' 등이 있다. 예수이름연구소를 통해 신학사에 나타난 예수이름, 조하네스 이명범의 예 수이름신학 등을 연구하고 있다.

유복곤 (YU bokkon)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및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을 졸업,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예명대학원대학교 신약학 교수다. 저서로 는 Η ΑΠΟΣΤΟΛΗ ΤΟΥ ΙΗΣΟΥ ΚΑΙ ΤΩΝ ΜΑΘΗΤΩΝ ΣΤΟ ΚΑΤΑ ΜΑΤΘΑΙΟΝ ΕΥΑΓΓΕΛΙΟΝ(2007), 유복곤 (편), 헬라이어 분해대조 로고스성경5(2015) 등. 역서로는 『마태의 예수이야기』(1999) 등. 논문으로는 마태공동체 의 선교역사 재구성 등이 있다. 신학 주임교수로서 예수 이름신학의 성서적 근거를 찾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조남신 (CHO namshin)

한신대학교 신학과 및 동 대학원 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예명대 학원대학교 정년 퇴임 후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 서로는 Das Spiel des Geistes mit dem Wort: Rudolf Bohren(1996) 등. 역서로는 오노마(ὄνομα, 이름)(2021) 등. 논문으로는 야웨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소유 관계 표시로서 기능하는 이름 관련 관용구 등이 있다. 통전적 신학으로서의 이름신학 정립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 예 수(의) 이름'의 키워드로 성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